

오늘 전북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사 돌입

도의회 예결특위, 3조9058억원 규모 학생 건강·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 익산)는 16일부터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전북도교육청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3조9,058억원(본예산 대비 4,367억원 증가, 12.6%↑)의 규모로 도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조 7,844억원(본예산 대비 3,996억원 증가, 11.8%↑), 자체수입은 363억 원(본예산 대비 20억원 증가, 5.6%↑), 전년도 이월금이 851억원(본예

산 대비 351억원 증가, 70.3%↑) 규모이다.

이번 전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은 미세먼지 피해저감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보급, 다목적 학교체육관 신축 등 학생건강 및 안전확보, 고교무상 교육 단계적 시행에 따른 고3 2학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전주혁신도시중 등 학교신설 및 학교·교육일반시설 개선, 학교운동부 훈련여건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임금협상에 따른 교육공무직 인건비 증액분, 지방교육재정 상황 예산

들이 반영되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신규 및 증액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의 적정성, 본예산 삭감사업의 경우 삭감 사유 해소여부,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타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대오 위원장(익산)은 "이번 전라북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미세먼지 대책, 학교시설의 석면제거, 안전난간 설치, 급식 안전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주안점을 두

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창의적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전년도에 비해 규모가 큰 전북도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 낭비성·소모성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더욱 꼼꼼히 살피면서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와 함께 대안 제시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1대 전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부터 임기를 개시해 활동 중이며, 오는 6월에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바른미래 신임 원내대표에 '재선' 오신환 의원 선출

당 경선에서 과반수 득표 얻어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에 재선의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구을)이 선출됐다.

오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3대 원내대표 경선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어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그는 바른정당 출신으로, 순학규 대표 체제에서 당 사무총장직을 맡아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청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사보임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김성식 의원을 제치고 원내사령탑에 오르면서 당내 갈등을 추스르고, 내홍으로 사실상 멈춘 내년 21대 총선 준비 작업을 해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 /뉴스시스

"국민 모독이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계단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망언 규탄 및 사퇴촉구 집회를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달창' 등으로 표현했고 이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반쪽을 사고 있다. '달창'은 스스로를 '달빛기사단'이라 칭하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일컫는 은어, 다시인사이드 등 반사회적 커뮤니티에서 '달빛청년단'이라고 속되게 이르는 용어의 줄임말이다.

축산악취 해결 찾기 '총력'

도의회 농산경제위, 김제 용지·익산 왕궁 단지 방문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가 전북도의 축산분뇨와 악취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현지 의정 활동을 펼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농산경위 소속 위원들은 김제시 용지면 축산단지에 있는 김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과 익산시 왕궁면 축산단지에 있는 익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방문했다.

김제 용지면 축산단지는 1950~1960

년대 이북 실향민과 한센인이 정착한 후 지역민의 소득생산 기반으로 축산업을 시작하면서 조성된 지역으로 올해 현재 4개 마을, 158농가에서 한우, 돼지, 닭 등 215만5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는 일평균 62톤으로 단지 일원에 조성된 17개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축사의 노후화와 개방형 자원화시설에 의거 축산 악취가 발생

해 인접한 전북혁신도시에 악취를 풍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곳으로 지적받고 있다.

축산단지 축산현황 및 축산분뇨 처리현황을 청취한 후 강용구(남원 2) 위원장은 "우선 축산농가가 악취저감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후 "위원회에서는 축산농가에 필요한 시설이 구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영석(김제 1) 의원은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에서 축산분뇨 처리시 충분한 시간 동안 부숙시켜야 한다"고 말한 후 "부숙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고 차단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이후 익산시 왕궁면 축산

단지를 방문, 축산분뇨 및 악취저감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 지역 역시 3개 농장 1개 마을, 114농가에서 9만5000마리의 한우와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 축산 분뇨 및 악취로 인해 연접한 완주군 삼례읍 주거지 및 우석대학교 기숙사 등에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김정수(익산 2) 의원은 "그동안 축산분뇨 및 악취로 인해 전국적인 오명을 쓴 왕궁축산단지가 노후된 축사의 매입을 통해 가축사육이 최소화되고, 생태복원이 조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왕궁지역이 전북의 새로운 쉼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문 정부 2년, 이룬 것 적지 않아"

이 총리, 편집인협 토론회서 "부족한건 부지런히 채워야 세계 국력 10위, GDP 11번째... 거시적 평가 좋아져"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문재인 정부 2년을 평가하며 "이룬 것도 적지 않지만 부족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국내에서 별로 보도가 안 된 듯 하지만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앤월드드리포트가 3월에 강력한 국가 순위를 발표했다"면서 "우리가 10번째에 올랐다. 작년 11번째에서 한 단계 올랐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어 "GDP(국내총생산)는 11번째고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 국가에 7번째로 들어갔다"며 "다른 나라는 식민 지배를 하며 경제력을 일찍부터 키웠다. 우리나라 식민 지배를 받다가 경제력을 늦게 키웠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런 통계와 지표를 인용하며 "세계의 거시적 평가가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많은 문제가 쌓였다"며 "이런 문제 중에 잘 해결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잘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 해결된 문제로 "강원 산불, 메르스, AI(조류 인플루엔자) 등 자연재해와 사회재해를 잘 대응해서 안전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산업재해도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고령과 실업의 고통이 커지는 건 큰 고민"이라며 "의료, 주택, 교통 부담을 덜고 가계비 지출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갈 길은 멀다"면서 "5G를 세계최초 상용화했고, 벤처투자와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올라탔다. 그러나 우리 대비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산업 정책을 경쟁국보다 대담하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 그러나 대화는 교착했고 평화는 잠정적"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이룬 것도 적지 않지만 부족한 게 있다"며 "이룬 건 확고히 다지고 부족한 건 부지런히 보충하고 채워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과도한 임대료 보육환경 약화시켜"

이명연 도의원,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개선 토론회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임대시설 어린이집의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규약 준칙 제50조 제6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수입에는 보육교사 인건비나 급식비 포함 금액으로 어린이집의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원인으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낮추고 급식의 질을 떨어트린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 의원은 공동주택 대표자와의 공동주택 관리자협회, 담당공무원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적절한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 측은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에 교사인건비 등 기본보육료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김진성 기자

부안
변산반도

모항해수욕장

채석강	내소사
새만금습지보관	죽포만갯벌생태공원
개암사	수성당
직소폭포	누에타운

2019 변산 파티워크 FESTIVAL

7월말 ~ 8월초
변산해수욕장 일원

익도 고승도지킴이

8월말 ~ 9월초
익도 일원

부안군 관광안내 콜센터 : 063)581-5114, 063)584-2114